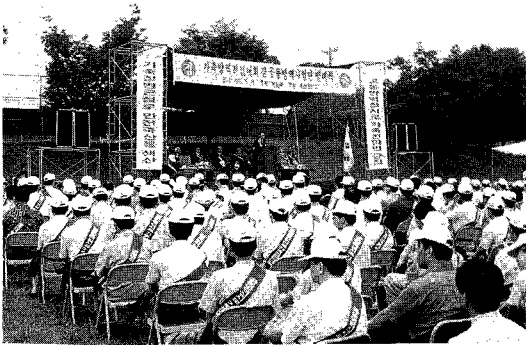


축산업계

소식

농림부

가축방역전진대회 겸 공동방역사업단
발대식 개최



농림부는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농림부장관,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방역전진대회 겸 공동방역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1일부터 닭고기, 돼지고기 수입개방과 2001년 1월 1일부터 쇠고기 수

입개방에 대비하여 가축질병에 의한 생산비 증가 요인(OIE추정, 축산업 GNP의 20% 손실)을 줄여 축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축산단체, 일선방역행정기관의 가축질병방역체제를 점검하고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참여자들은 2003년까지 주요가축전염병 근절 목표로 일선 가축질병 방역관련 기관의 예찰, 예방, 진료체제 구축 및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가축질병공동사업단 발대식에서는 농림부가 주요가축질병 장기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발족한 공동방역사업단은 축협 등 생산자 단체, 양돈단지 등이 참여하여 지역별 축종별로 구성하였고 금년중에 50개소, '99년까지 250개 사업단이 구성될 계획이다. 공동방역사업단에는 기동방역차량 예방약 보관시설, 고압·세척소독기 등 예방장비를 지원하여 가축질병예방, 예찰활동과 질병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토록 운영한다.

축산물가공식품관리 일원화를 위한 청원서 국회접수

축산농가의 숙원과제인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를 위한 청원서가 236개 단체 공동명의로 지난 11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되었다. 청원서 관련 준비는 약 3주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축산관련단체, 학회,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총 236개 단체가 공동 청원하는 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 청원서의 소개 국회의원은 155명으로 신한국당 57명, 국민회의 55명, 민주연합 38명, 민주당 3명, 무소속 2명의 의원이다. 그동안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는 행정쇄신위에

서 농림부로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결정하였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확정과제로 채택된 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법개정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에 공문통지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행정입법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관련 단체들이 국회에 청원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가 실현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농림해양위에서도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축산농가의 거센 요구에 직면하여 더 이상 법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협중앙회

주한 외국 농무관 및 축산단체 대표 초청 설명회



축협중앙회(회장 송찬원)는 지난 11일 축협중앙회의 날을 맞아 주한 외국 농무관 및 축산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축산현황과 축산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축산업에

대한 주요 축산수출국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축산분야 상호 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자리에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러시아 대사관의 농무관 및 축산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송찬원 회장은 축산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한국 축산현실을 설명하면서 "다른 나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시장개방이 한국 축산업의 붕괴로 이어진다면 이는 자유무역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무역 확대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무역 상대국과 우리나라가 공동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대전 · 충남양계축협

계란브랜드 '향계촌' 출시



대전 · 충남양계축협(조합장 현광래)은 조합원이 생산한 계란의 판매를 촉진하고 축협의 브랜드 통합에 대비해 고유 브랜드인 '향계촌'을 개발하였다. 동협이 1년여의 작업 끝에 개발한 '향계촌'은 고품질의 신선한 계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향계촌 참한알 외에 한방란, 유정란, 황토란, DHA란 등 다양한 상품명으로 소비시장에 진출하고 있다.